

금산을 세계적인 인삼 메카로 키우기 위한 체질개선

- 내가 먹은 인삼이 나의 건강을 만든다 -



이숙경 |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4조 달러의 국제인삼시장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화기삼이 72%, 중국삼이 25%,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2.8% 유통되고 있으며, 수출은 10년 사이 1/3로 줄어 국제 인삼거래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고려인삼제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의 “국보 농산물”이며 바이오산업의 반도체로 수 천년을 지켜왔던 “인삼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재의 인삼산업은 분명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금산인삼>브랜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인삼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재배적지의 고갈과 인력난과 같은 생산여건의 악화와 경쟁국들의 세찬 도전과 개방화에 따른 안팎의 어려움을 넘어 금산인삼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화를 위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의 전략을 짚어본다.

효능차원에서는 고려인삼의 우수한 약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근거 없는 약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삼의 대표적인 약리작용은 “적응소(Adaptogen)효과”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특이성 생체방어능력을 증대시켜 병적상태를 정상화시키는 작용이다” 즉,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자연치료제”로 고려인삼에 함유된 진정·홍분작용의 성분이 몸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저혈압은 혈압을 높여주고, 고혈압은 혈압을 내려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삼이 고혈압에 좋지 않으며, 열을 올리는 효능이 있어 여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퍼져 있는 것도 수출에 장애가 되므로 약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생산·가공차원에서는 농약의존도를 줄이고 인삼의 섭취방법과 가공에 알

맞은 품종의 개발과 재배, 생산 및 품질의 규격화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이 필요하며, 인삼의 단순가공제품을 탈피하고 인삼산업의 성패 분수령이 될 신약 등 다양한 우수건강기능식품개발과 함께 제조시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MP)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겠다.

유통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 전국 수삼의 8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 수삼센터에서상인들이 자체적으

로 30여 등급으로 구분하고, “큰뿌리는 6년근, 작은뿌리는 4~5년근”이라는 관행거래를 벗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거래등급의 표준

화를 위해 제정한 “수삼표준규격”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인삼공사에서 수매하는 6년근 수삼 생산량의 15%를 제외하고는 발떼기로 거래되고 100~200명의 수집상이 주도하는 산지유통구조, 위탁상·중간도매상 등 6~8단계의 유통과정, 40~70%의 유통마진율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에서 유통·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생산·가공·유통 계열화사업이 필요하다.

마케팅차원에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야 하고 더불어 홍콩과 대만은 뿌리삼을, 일본과 유럽 등은 제품을 선호하듯 지역별 마케팅전략과 다양한 제품을 고가제품과 중저가제품으로 차별

화전략이 필요하며 인삼의 학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새롭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

기획, 정책차원에서는 인삼의 수출잠재력을 키우기 위하여 국제식품위원회(CODEX)에 제안한 인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확정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인삼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확장, 연구, 신제품 개발 등에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독려

하는 정책지원과 자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금산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화를 위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의 필요

”

문화차원에서 충남도의 “일본과의 교류 전

락을 백제문화와 인삼, 벤처기업을 함께 묶어 추진” 사업이 꽃을 피우길 간절히 소망하며, 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부 최우수축제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드는 감동의 문화축제로 더 활성화하여 “금산인삼은 건강”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얼마나 각인시키느냐?에 따라 인삼종주지인 금산과 충남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